朝鮮日報
夕刊
十八日(日)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發行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明年度新規要求豫算一億圓
基本的財政政策을改正하라

一

各局에서 提出한 明年度 新規要求를 財務局에서 査定에 着手햇다 한다。旣報와 갓거니와 明年度 新規要求는 實로 九千九百萬餘圓의 巨額으로서 多少의 增加는 未免하리라고 豫想햇든 財務當局도 그巨額에 驚愕햇다 한다。財務當局뿐 아니라 朝鮮의 今年度豫算은 追加豫算을 合하야 二億三千四百萬圓에 達하는데 其新豫算 二億八千萬圓程度에서 近一億의 新規要求를 加한다면 三億八千萬圓에 達할것이므로 人民全體의 驚愕은 一層 더한바이다。왜 그러냐하면 朝鮮의 豫算은 合倂當時인 明治四十三年頃에는 二千萬圓內外를 上下하엿든데 近年에 이르러는 急速度로 膨脹하야 當時의 約十五倍나 激增하얏고 게다가 다시 一億圓의 新規要求가 成立되면 二十五年間에 約二十倍의 豫算膨脹을 보게되는때문이다。

二

勿論 豫算의 膨脹이 반듯이 人民負擔의 過重을말하는것이아니므로 一律로 豫算膨脹을 反對할바 아니오、어떤 境遇에는 積極的 人民 富益의 增進시키는 證左로 되어 도리혀 贊成할點도 잇스나 朝鮮 豫算의 膨脹裡面을 보면 人民 富益의 增進보다도 負擔過重의 길을 밟아 온것이 만허서 이에 그訂正을 要求치 안흘수업다。例컨대 國家의公債發行은 結局 人民全體의 負擔이어늘 그公債라든지 國庫補助는 朝鮮全體의生産增加에 供하다하면서 一部大生産機關을 가진 資本家의 生産을 돕는 補助金又는 施設로서 만히 充當되고 歲入의 大財源이 되는 大生産機關에는 生産의 增加를 促한다는 意味로 課稅를 적게하얏다 朝鮮의 産米增殖計畫에 잇서서 國有拂下地에 課稅를 안하고 그補助金을 大企業家에게 주며 個人所得稅를 最近에야 設置한것은 그 例가아니냐。

三

總督府 財政政策에 잇서서 訂正을 要할것의 한두 가지가 아님은 屢次 主張하얏다。所得稅相續稅의 創設 그負擔의 均衡이라하나 結局에 잇서서 中産階級에 負擔의 增加를 招致햇다는것은 再論하라 안커니와 恩給負擔의 增加、補充金의 減下가 結局 朝鮮人의 負擔을 增加케 하는것이며 加俸의 撤廢 警察費의 削減、敎育費의 增加 自作農創定等 社會政策費의 增加가 全人民의 要求어늘 何等決斷的 政策을 못봄은 遺憾이다。어찌 그뿐이리오、大會社에 補助給與、小商、小農의 放任等은다 缺陷이다。

四

明年度 新規要求가 웨 이가티 尨大한가는 詳細한 內容을 보기前에는 알수업스나 外事課關係의 大移民計畫、地方土木事業、鐵道新線建設等이 主要한 것은틀림업다。殖産興業은 本來부터 反對하는바 아니다。그러나 그 殖産興業이 大多數人民의 富益으로 되어야하며、또 그리하라면 一般의 敎育이 어시는 ……收入에 잇서서는 人民의 負擔을 增加치 안케하며 ……人民全體의 富와 幸福을 增進시도록 樹立되지 안하면 안될것이다。吾人은 차라리 財政政策의 根本을 改正할 必要가 잇다고 믿는다。

伊太利의遷延策에 英强硬態度表明
態度如何론會議決裂도不辭
三國會商停頓狀態陷入

【巴里十七日發聯合】會商第一日에 假然停頓狀態에 陷한英佛伊三國會商은 伊太利側이 急速히 어떤 積極的態度를 表明하지안는限 決裂될수밧게업다하야 英佛兩國政府는 悲觀的觀測을 나리고잇다 十七日 이든 라발兩氏 會見은 午後 五時五十分부터 六時三十五分까지 四十五分間에 亘하엿는데 이든代表는 會見席上에서 英國의 決意를 表明하야 萬一 伊太利가 한갓 遷延策을 弄할 境遇에는 斷然 倫敦으로 撤回할수밧게 업다고 通告까지 하엿는데 이든代表의 佛外務省訪問은 電話로 불드린 首相 호어外相의 意見을 드른다음이겟마는 그通告는 最後的 通告와 가튼것이라고보아 자못 重大視되어잇다 英佛兩國代表와의 電話妥協時 이意嚮을 充分히 傳한 模樣이다

【倫敦十七日發聯合】伊太利政府가 英佛兩國에서 提出한 和協試案에 對하야 十七日夜에도 確答을 與하지안코 英佛朝野를 자못 憤慨케하고 잇는데 英國代表部는 假然緊張된 빗을 보이면서 뭇솔리니首相과 妥協을 繼續하고잇는데 果然十九日 開會케 될는지 안될는지는 甚히 疑問視되여잇다

【巴里十七日發聯合】十七日午後 三國會議開催키로 豫想되엇든 三國會議는 또延期되엇다 但事情에依하야는 밤에三國代表가 會合하리라는바 三國代表는 各各緊張裡에 事態의推移를 注視하고잇다 라발首相 이든無任所相 아로이지男三代表間에 爲先電話로 交協한後 再開케될터인데 午後의會談休會는 伊太利代表部가 아즉羅馬로부터 回訓이오지안엇슴으로 아로이지男이 延期를申込한것으로보인다(寫眞은 이든氏)

英半官側、에國의 門戶開放强調
英國의對에經濟進出攻擊한
伊太利紙論說에應酬

【電通倫敦十七日發】伊太利紙조르날레·이탈리아의 主筆 가이다氏는 伊에紛爭問題에 對한 英國의 態度를 不滿히 생각하며 恒常 猛烈히 反英的筆陣을 펴고잇는데 더욱이 最近 同氏가 同紙上에 揭載한 英國의 에디오피아에對한 經濟的進出을 攻擊한 論說은 자못 英國側을 刺戟한 모양으로 當地半官側에서는 今日 右論說에 應酬하는意味로 左와如히 에디오피아의 門戶開放主義를 强調하얏다

조르날레·이탈리아紙上에서 가이다氏는 英國의 에디오피아에對한 經濟的進出에 攻擊을 加하고잇는데 右攻擊은 잘못되지이다 英國으로선 에디오피아의 門戶開放主義를 强調하는것으로서 더욱이 에디오피아의 門戶開放은 何等一九○六年의 條約에 矛盾되는것은아니다

에國政府에서 英中佐를顧問決定

【아디스아베바十七日發聯合】英國人산드포드中佐(退役)를 작앗시에政府顧問에 任命하기로 十七日에 決定하엿다 포드中佐는 에디오피아에 在任한지 이미오래되여 一九一四年에는 아디스아베바駐在英國公使를勤務한일도잇고 大戰後에는 再次 아디스아베바에駐在하야 今日에及하엿다 말하자면 에디오피아 在任英國人中의古參일뿐만아니라 英國人中唯一한 에디오피아通이라고 指目되는 人物이다 今回의 任命은자못 意味深長하것 이라한다

伊首相의怪氣焰

聯盟理事會에서 英『에』에斷然挑戰
巴里會商은決裂될것박게업다고
强硬한態度를强調

【羅馬十七日發聯合】뭇솔리니首相은 十七日午前中은 巴里의 아로이지男으로부터 電話로間斷업시 情勢의報告를 受하고 여러가지方策을 指示하고잇는데 英佛側과 妥協못될것을 豫想한셈인지 午後는 東阿遠征으로 動員되야 目下訓練中의 파시스트民團을 閱兵키爲하야 自動車로 이제르니아에赴하얏는데 巴里會商進中인마큼 各地의 首相歡迎은 猛烈을 極하얏다 이제르니아에 到着한 뭇소리니首相은 第二十三民團一萬二千의 黑샤쓰隊앞에서 파시스트帝國建設을 絶叫하고 伊太利의 强硬態度를 强調하야 非常한注目을 惹起하얏다 我等은 파시스트의 成就까지는 斷乎前進치안흐면안되리다 余는 諸氏가 우리目的이 達할時까지 鐵의規律로 邁進키를信하다 余는 巴里會商은 決裂될밧게업다고본다 그리고 그後에올것은 國際聯盟이다 卽 聯盟理事會에서 伊에兩國紛爭을 全面的으로 討議케되면 그때我等은 에디오피아와 英國에對하야 斷乎挑戰狀을 내던질것이다 (寫眞은 무首相)

北中治安維持는駐屯軍
停戰協定保衛는關東軍擔當
赤化防止策도決定

【電通新京十七日發】關東軍에서는 多田中國駐屯軍司令官을마저 十七日午後一時부터 軍司令部에서 關東軍及北中駐屯軍의 正式打合會議를 開하고 西尾參謀長도 病中不拘코 出席 板垣參謀副長 下村第一 河邊第二 永津第三課長及 各參謀列席으로 北中問題에關한 關東軍과 北中駐屯軍과의 一般的軍事連絡에 關하야 協議를거듭하고 午後三時散會하얏다 이會議結果 北中의治安維持에 關하야는 北中駐屯軍이 主體가되여 이에當하고 停戰協定에 關하야는 關東軍이 主가되여 一切의 解決에 當하기로 妥協하얏다 따라서 今後 發生한 欒州事件 國際列車轉覆事件等은 停戰協定의 違反과 治安撹亂의 兩者에 關聯한 重大事件임으로써 多田司令官의 着任을 기다려 關東軍 北中駐屯軍 一致하야 그措置를 講求하고 停戰協定違反續出에 對한 方策으로 關東軍은 協定區域內에 在한 萬全의 策을 講키 爲하야 保安隊 其他警備의 充實을 圖키로 되엇다 또 中國領土를 侵蝕하는 蘇聯의 赤化東漸政策은 北中의 治安에 惡影響을 及할 뿐아니라 日、滿、中三國의 利害에 重大한 關係를 及하고잇슴으로서 河北、察哈爾、綏遠、山東、山西五省의 連絡을 鞏固히 하고 赤化防止共同對策을 講하는 方策을 取하기로 決定하얏다 또 北中經濟開發에 關하야는 滿洲國滿鐵 其他의 調査研究로서 充分한 準備를 整備한後 滿鐵資本을 中心으로 日滿中資本을 動員하고 交通網의 完成 資源의 開發等에 向하야 步武를 가티하기로하고 軍은 外部的으로 此를 支援하야 健全한 北中經濟開發의 目的을 達成할 方針이다

專任外交部長에 張群氏任命乎

【電通漢口十八日發】身病再發中이든 汪精衛氏는 行政院長復職……

汪氏退任時의 豫想되는後任

【電通上海十七日發】廬山會議는 蔣介石氏를 中心으로 汪精衛氏辭留問題 國民政府 行政機構改革問題等에 對하야 協議하야 意見一致되지못하고 汪氏의 容認으로 어느 程度까지 實現하리라고 觀測되는데 外交部長兼職은 어데까지 辭退할 模樣이며 後任部長에는 湖北省首席 張群氏가 任命되리라는說이 當地에서 가장 有力하게 傳하여 잇다 其後任인 湖北省主席에는 楊永泰、熊式輝、蔣作賓氏等이 下馬評되여있다

國府對日態度는 依然히險惡코複雜

【南京電話聯合】汪外交部長이 辭意를提出한 中에잇고 또一方에 잇서 廬山會議를압두고 外交部가 突然北平地方 飛行을日本으로 抗議를提出한것은 目下北平에서 欒州事件、列車轉覆事件의 善後策等에 對하야 日本當局과의 折衝에 當하여잇는 王克敏氏의 立場을 자못困難케하고잇다 十五日 王克敏氏가 政務整理委員會 委員長代理를 辭職하고 십다는 意를 南京政府에 通達한 것도 이러한 南京政府의 空氣에서 基因되는것이라고 觀測되는다 特히今回의 措置는 外交技術的으로도 拙劣하다는 評判이 잇다 또一面 南京政府 部內의 眞正한 對日態度가 如何히 復雜하고 險惡한가를 遺憾업시 暴露한데 不外하는바 그推移는 政府部內의 問題로나 對外的問題로도 相當히 注目되여잇다 그리고 右飛行은 日本側이 미리 國民政府의 許可를 어든것이 아님으로 南京政府는 日本側의 右行動에 抗議를 提出하야 日本當局이 飛行을 中止할것을 要求하리라한다

平津地方飛行에 國府에서抗議
◇日本大使館에

【北平十七日發聯合】南京政府外交部는 十七日 日本大使館에 對하야 最近 天津地方에잇서 日本飛行機가 飛來하고잇는 事實에關한 抗議를 提出하엿는데 外交部抗議內容은 左와如하다 最近平津地方에 잇서 日本飛行機가 飛行하는일이 頻繁하……

北島파탄島에 米軍飛行場設置

【마닐라十七日發聯合】比律賓駐屯米國陸軍은 今回資材에 接近하여잇는 比律賓北方 파탄島에 飛行場을 新設하엿다 當局은右飛行場의 新設이 何等軍事的意義를 갓는것이 아니라 比律賓各地에 飛行場을 設置하야 航空事業의 發達에 資케하려하는 計劃의 一部實現에 不過하는것이라고 稱하고잇다

푸리메손解散과 財産沒收令!
獨內相十七日發布

【電通伯林十七日發】獨逸內相 프릭氏는 十七日現在 아직 獨逸國內에 殘存하여잇는 푸리메손(猶太人의秘密結社)의 解散及 財産沒收令을 發하엿다

世界外史

永田中將遭難

陸軍省軍務局長 永田鐵山中將은 十二日 軍務局長室에서 執務하고잇든中 今回陸軍大移動에잇서 臺灣으로 轉任케된 陸軍步兵中佐 相澤三郞의 狙擊을 바다 마츰내 殞命되엿다 右事件의發生이 陸軍部에서 되엿고 또加害者가 現役將校인마큼 그波紋은 極히커서 一時는 林陸相의 進退問題까지 傳하엿스나 ……

三國巴里會商

에디오피아의 運命을 決定할 一九○六年條約의 關係國인 英佛伊三國會商은 十六日 巴里外務省에서 開催되엇다 英國側에서는 이든 無任所相 佛國側에서는 라발首相 伊太利側에서는 아로이지男이 各其 首席代表로 會議에 出席하야 ……

廬山會議開會

行政院長 汪精衛氏의 辭意提出을 前後하야 南京政府의 空氣는 緊張狀態에 빠지게 되엿다 그리하야 蔣汪兩巨頭를 비롯하야 國民政府要人의 廬山集合으로 內治外交策을 協議할 廬山會議는 十七日 蔣介石氏의 司會로 開會되엇는데 右會議의 議題는 勿論 汪精衛氏 辭意問題 現下國民政府가 處理할 諸問題 外交問題와 六中全會開催及 五全大會等에 對한 對策을 協議할것이다

英海軍會議提案

英國政府는 日、英、米、佛、伊等 五個國政府에 對하야 十月倫敦에서 海軍軍縮會議를 開催하자는 趣旨의 提案을 正式으로 通達하엿다 右提案에 잇서서 英國政府는 日、米兩國과 相互的制限에 諒解될것을 暗示하엿다 이에對하야 米國政府는 依然 參加하리라하며 日本海軍에서는 英政府의 海軍會商招請에 ……하고잇다

콤인턴大會經過 米政府極히注視
駐蘇뿌릿트大使에特別指令
大會中特別監視토록

【哈爾賓十七日】莫斯科로브터의 報道에 依하면 米國政府는 第七回콤인테른大會의 經過에 多大한 注意를 拂하고 駐蘇大使뿌릿트氏에게 特別指令을 發하야 大會期間中 莫斯科에서 米國의 蘇聯承認當時에 蘇聯政府가 米國의 內政에 容喙하지 안켓다고 約束한것을 볼쉬비키가 干犯한 形跡이 잇고업는것을 確探하야 米國에서 共産主義宣傳을 阻止하라는 命令을바든 模樣이다 하야 뿌릿트大使는 特別監視命令에 依하야 豫定의 避暑旅行을 中止하고 大會期間中은 莫斯科에 滯在하기로 決定하엿는데 코민테른大會에 잇서 獨逸代表 피크가 米國共産黨에 對하야 불주아지와 鬪爭하기 爲하야 全勞働者大衆은 農民大衆과 大同團結하야 鬪爭을 開始하라고 웨친것이 米國當局의 神經을 尖銳케하엿다

美濃部博士處分 寬大히處分乎
起訴留保될듯

【電通東京電話】美濃部博士의 憲法說에 關한 司法處分은 그後 延期되여왓는데 檢察當局에서는 六日十七日의 檢事正會合에서 該問題에 關한 全國檢事局의 意見을 聽取하고 그處分을 決定에 對하야 參考觀念을 得하야 다시 本月下旬으로부터 來月上旬까지에 司法處分을 決定키로 되엿는데 起訴處分은 免할수업고 結局寬大히 取扱되야 起訴留保가 될듯하며 또 戶澤主任檢事는 過日 金森法制局長官事件도 精査하야 同長官을 召喚하야 取調할 與否도 檢討키로되엿다

米下院外交委員長 中立擁護法提案
戰爭勃發時에備하야

【華盛頓十七日發聯合】下院外交委員長 마크레니놀氏는 十七日 戰時에잇서서 米國의 中立政策確立을 目的으로하는 中立法案을 下院에 提出하얏다 法案의 要旨는 左와如하다

一、議會는 戰爭勃發時 中立을擁護키爲하야 大統領에게 左의 事項에 對하야 命令을 發할 權限을 附與함
一、交戰國에 對한 軍需品輸出禁止
一、米國國內에잇서서 交戰國政府公債購買禁止
一、外國潛水艇의 米國港灣入港禁止
一、米國國民의 交戰國內의 旅行禁止

日曜氣配

氣配小瞭

▲綿絲=不變 大阪地方 快晴
大新 一三八 一三七 / 東新 一三六 / 鐘紡 七六二 / 日産 五二五

▲期米=天候恢復模樣에 氣味이나 昨日神戶에잇서 最高米價에 依한 買入申請三、一四八俵가잇서 正米缺乏에 依한 大勢는 依然 强調로 經過하야 意見이 堅調하다

▲株式=高値는 買物이 續出되지못하는 模樣이나 目前般幾이잇서 底意 堅調를 呈하고잇다

米日爲替
【紐育十七日發聯合】今日의 米日爲替 賣 二十九弗三十八仙 買 二十九弗三十五仙 保合 一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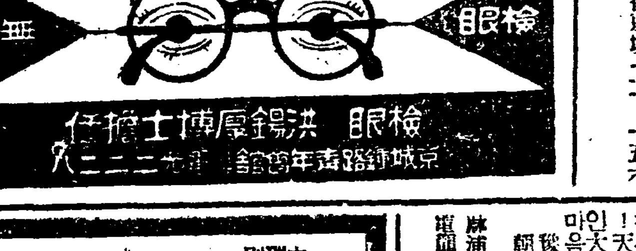
人事·集會
▲李圭鉉氏(徽文高普敎員、中央體硏師範) 十六日昭格洞七三自宅에서 喪配

今日本紙四面

八面鋒

◇ 해마다 恩給負擔은 늘고、公債發行額도 늘고、稅金도 늘는데、補充金만은 漸次 주릴作定이라고。
◇ 그러더 보니 백성의 負擔만 增加하는 모양인데、그만치 백성의 富가 늘어가는지?
◇ 에디오피아를 後援해주겟다는 나라가 東에도 西에도 어려 난다。
◇ 伊國을 抑하고 에國을 扶하는것이라면 異議가 업겟지만、天下 果然 이러한 正義의 第三國이 얼마뇨?
◇ 中國도 마찬가지、日英、日米、日蘇、日某、제各其 中國을 돕는체하거니와 中國을 돕는者 누구?

物理療醫師
生活第一有望
最新最高 物理醫學 責任養成
院長은 我國綜合電醫의 創始者로써 東京電醫學校學長이고、斯界權威에 有名한 巨頭이다
永久醫師同樣의 資格을 獲得하야 衆人의 尊敬과 生活의 安定을 得할者는 必히 今期에 入學하라 不遠總督府令發布其後에는 自由開業은 不許할뿐더러 本院의 資格證書로서 自由開業이 되여 永久安全하고 有資格인 養成所는 本院以外엔 업다
◉來院하면一目明瞭 (希望者는 規則書를 請求하라(郵券))
認可京城高等電醫講習院
附東京電醫學校實習院
京城府黃金町三ノ三四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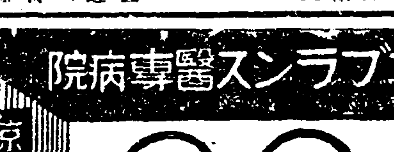
洪錫厚診察所眼鏡部

無料 檢眼
檢眼 洪錫厚博士擔任
京城鍾路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 서울고무工社 電光一一五九

看護員採用
煙草商 京城府冷洞一三九 張一權
朝報案內
寸虫藥
限定承認公告

漁具 秋岡商會
京城明治町一丁目 電話本局四三九〇 振替京城一二〇一五六

療養院 專門療養院
院長 高 博士
副院長 金秉瑞
電話 京一七〇五番 振京一六九番

セブランス醫專病院

檢眼無料
京城驛前 電本四七四〇
本校眼科敎授 本院眼科長 擔任

謝禮의말슴
食館ボアグラン 千代田グリル의姉妹館으로써 여러분의 期待에 奉副코저 盛況裡에 開館하엿슴니다。
▲써ー비스가 不充分하야 참으로 罪悚하오나
▲朝鮮서처음인冷房裝置
▲高尚優雅한建築樣式
▲和洋式各調理人의 굉장한솜씨
이러케 은新樣式建築에 相應한 商業方針이라고 絶大한 賞讚을 浴하고 잇슴을 深謝합니다。
調理의 吟味와 設備를 改善中이며 더구나 少年뽀이들의 익숙지못하야 不足한點은 참으로 愧面을 참지못하겟사오나 끗업는 反省과 努力으로 漸漸完全히 되고 完備되야가오니 鴛馬에 加鞭하시는 生覺으로 枉駕하시사 鞭撻하여 주심을 切望합니다。
더욱 兩三日前부터 冷房도 全혀 完備되야 참으로 冷味萬斛입니다 十食의 카운타料理에는 鮮魚로 有名한 森田厨長이 直接여러분의 보시는 자리에서 自慢의 調理品을 바치기로합니다。
食館ボアグラン
旭町入口 旭ビルヂング內
電話 本局 八九九 本局 四、六八四

洋服クリーニング는三洋舍
唐珠洞三 電光三〇六

世界的新發明 金屬寫眞 (特許願)
本社의 研究에 依한 世界的新研究品 金屬寫眞은 左의 三大特徵이 有합니다
一、永久的
二、價格低廉
三、藝術的
◉地方代理店募集
◉外勤社員招聘
工業相談部
京城府光化門通二一〇
合名會社 京城工研社
社長 崔晃
電光二四七一番 振替京城二四〇一六番

八月十七日부터四日間 每日三回 午前十一時半 午後二時半 七時半
團成社

八月十六日より 特別公開
透明人間

大正舘
若様人生勉强

桃花劇場

訃告
報喪總代

財源難의京城府 新稅目創設을研究
府에서 調査委員會를開催 明年부터 實施할方針

재원의 고갈로 예산회부족을 늣기는 경성부가 가벼운 부민의 주머니를 더욱 쥐여짜려는 괴로운 소식이잇다

즉 경성부에서는 대경성의 건설과아울러 여러가지 건설상돈드는일이 만흔데 재원의출처는 업서서 고민하든끗에 소위시표급취료(展示報料)라는 새수수료를 부민에게서 밧기로 하야 그것을 지난륙월부터 실행해오는터이나 그것의소득과 도로하수구등개수구역의 평수할(坪數割)수익세중수등으로 만흔 도저히 백공천창인 경성부의 재정을 얽어나갈수가 업슴으로 지난번에 일반경제재원조사위원회(一般經濟財源調査委員會)를열고 이달부터 (伊藤府尹)등제아래 명년부터 신세창설(新稅創設)할것을 전제로 부민의 현재조세부담상황과 기타사용료 급 수수료의 상황을 조사검토하엿는데 아직 그내용은 비밀에 부치고 발표치 아니하나 탐문하건대 부동산 소득부가세 (不動産所得附加稅)를비롯하야 정원(庭園)이 잇는집에 정원세(庭園稅) 흥은 한지세(閑地稅)며 기타 종종세로 몃가지에대한 재움미를 하야다 명년부터는 저률(低率)이나마 이를 실시하야 점진적 으로올리려는 의향인바 과연 이것이 어떠형태와 어떠정도로 실시될른지 주목을끌으다

全南南海線鐵道 促進運動具體化
近方住民代表가 光州에會合 運動方針等을協議

【光州】남조선 철도주식회사 경영인 광려선(光麗線)철도의 국철이관과를 명년상월에 압두고 동회사의 제이기공사 예정선인 남해안선(南海岸線)공사촉진운동을 목포(木浦)를 필두로 장흥(長興) 경압 보성(寶城)등 연선 각주민들이 맹렬히 운동하고 잇다함은 긔보한바 잇거니와 십칠일에는 목포 광주 송정리(松汀里) 담양(潭陽) 순창(淳昌) 남원(南原)등 륙개지방대표 사십명이 하오이시에 광주읍 사무소루상에 회집하야 밤서 소화이년 제오십이회 제국의회를 통과하야 소화십이년 계획사업으로 되여잇는 담양(潭陽) 남원간 철도부설촉진기성회를열고 장시간 협의한후 만장일치로

一、政務總監과 鐵道局長을爲始하야 要路當局者에 要望打電할것

二、各地方으로부터 代表者一名式을 選出하야 適當한時日에 鐵道當局에 陳情할것

等을결의하고 동사시경에 산회하엿다는데 동 예정선 삭십팔키로 백메타의철도가 부설되고 일방현재지방민들이 촉진운동을하고 잇는남해안선과 목하공사중인곡성、순천간 (谷城、順天間)의 전경선(全慶線)철도가완성되는날에는 전남을 중심으로 전북 경상남북 추요지 철도로 런락은 만천의여에 달하야 전남의 산업은 힘것 개발되리라고 촉망되고잇다

土地熱膨脹으로 또 境界線싸움續出
平壤警察仲裁에忙殺

【平壤】평양에도 도처에 토지경계선싸홈이 끗칠사이가 업서평양서에서는 중재하노라고 머리를 알코잇다 이원인은 토지경긔와 건축열의 부산물로 가옥신축、개축、수축이만허 이런경우에는 반다시 경계선에 대한 싸홈이 이러나고 자력으로는 해결을 짓지못하여 거의전부가 해결의뢰를 평양서에 하게되는터인데 이싸홈이 매일삼사건 내지십수건에 달하는터이다

하여튼 이런현상도 평양의발전을 웅변으로 증명하는것이므로 평양서원도 엇절수 업시 땀을촐리려면서 중재를 하여 주노라고 야단이라한다

大田에火災 放火의嫌疑

【大田】십륙일 밤열두시경 대전본정(本町)일정목 백번지 김연두(金淵斗)의 집에 세로든려잇든 부억에서 불이이러나 동가옥을 전소하고 약한시간후에 겨우진화하엿는데 손해는 일천오백원가량이나 동가옥에는 빈민 여섯가족이 살고잇스므로 그들은 일조에 집을일코 거리에서 방황하게되어다 원인은 방화의협의가 잇다하야 동가에세드레든 전씨(全氏)(一八)를 대전경찰에 인치취조중이다

無産兒教養機關 雙化書堂의竣工
盛大히落成式擧行

【城津】성진군학성면쌍포동쌍화서당(城津郡鶴城面雙浦洞雙化書堂)은 대정십일년 사월십사일에 유지서인순(徐仁順)씨외 오인의 발긔로 창설되이래 춘풍추우십삼개성상을 꾸준히 농산어촌의 문맹아동을 교양하야 삼백여명의졸업생을내인 혁혁한 력사를 가진서당이다 창설당시의교사인 사간모옥으로는 지원생도를 수용할수업서서 동계원저금과 각촌공유재산으로 대정십일년가을에 사간교실를 신축하고 동십삼년사월에 황청조(荒井組)에서 긔부한 사무실일동과 현금백원으로 증축까지 하엿스나 축년증가하는 생도를 도저히 수용할수업서서 작년오월에 동서당리사회에서 교사신축을 결의하고 리사장 허중갑(許仲甲)외오명의 청년들이 단연 궐긔하야 각방면으로 활동한결과 이천여원의 찬조금을 어더가지고 본년상월십일에 건평 오십사평의 신교사건축공사를 긔공하야 팔월칠일에 준공하고 지난십사일 오후한시에 관민유지 오백여명의 참석하에 교장 서인순씨의 의미심장한 개회사로 성대한락성식의 막이열이엿는데 연혁과 공사보고가 잇슨다음 성진군수대리외사인의 축사가잇슨후 동세시경에 폐식하엿다

出嫁不能을悲觀 妙齡處女自殺

【仁川】출가못할것을 비관코 자살한처녀=지난 십이일 인천월미도(月尾島)북해안에 이십세가량된 녀자시체가 잇는것을 ≪짐≫피어≪가 발견하고 소관서에서 그신원을 각방으로 내사한등중 십칠일에야 판명되엿다 그는 시내 률목리(栗木里)구번지 윤윤히(尹允姬)(二〇)라는 처녀로 년마하야징을따라 출가코자 하얏스나 신병으로 의사의 말에 의하면 당분복약하는동시에 출가를 중지하라함으로 할수업시 전긔주소의 친척의 집에와잇다가 이에 모든 것이 낙망이되아 비관자살한것이라한다

九十老婆投江 青年鐵道自殺
◇離婚及生活苦悲觀 二件

【平壤】가정불화로 자살한청년과 노약을비관하여 자살할려든 노파가잇다

◇……황주군청룡면소곳리(黃州郡靑龍面小串里)(?)은 부부사이가 조치안어 십오일밤에 한바탕싸우고 격분한나머지 부근주막에서 술을만히 마신후 경의선 황주친교시 이경선긔점 십육킬로지점 선로를 벼개삼아 잠이 드럿다가 오후열한시십분경 통지점을 통과하는 제팔렬차에 목이끈허저 그대로죽엇고 십오일오후여섯시 사십오분경 부내창전리(倉田里)리봉일(李鳳日)이 신창리(新倉里)앞강안에서 소풍을하든중 노파가 동연강가운데 뛰여드러 자살하려는것을 발견하고 의복입은채 뛰여드러 간신히구조햇는데 부내 창전리(倉田里)라는 구십상세의 노파로 노약을비관하고 염세자살을하려든것으로 판명되엇다

言爭끄테 殿打햇더니 밤사이에 絶命
빈전에선남매의울음뿐 夫婦싸홈의 이悲劇

【仁川】인천시내 신화수리(新花水里)십륙번지 고봉룡(高鳳龍)의처 김씨(金氏)(三八)가 한가히노래를 부르고잇슴으로 남은 이고염에 먹고살려고 고역을하는데 가정부녀로 집안에서 노래가 무슨 노래냐하는것이 리유가되야 맛참내싸호게되엿다 그러나 그의 집인 십륙일아참이되여도 김씨가 이러나지아니함으로 남편이 흔드러 깨우려할때는 발서목이 식은시체가되여잇섯다 이에그는 전날밤 싸홈이 심하얏든것을늬웃치고 묘도(猫島)근방에가서 자살을 도모하고 바다에빠진것을 소관서원에게 발견되야 붓잡되엿다 다시 김씨의시체를 해부한결과 임신륙개월에 가상과머리에 심한타박상으로 죽은것이 판명되엿다 이로 그남편은 상해치사의 혐의로 류치되엿다는 데 그들의 슬하에는 아홉살첫재로 삼남매가잇다 그들은 일시에 부모를일코 비이치안에서 엄마를찻고 우는정상은 목불인견이라한다

★……가을을 기다리는 단풍

朝鮮共青事件 四十五名의大公判
九月二日로期日決定

【咸興】소화팔년칠월경부터 함흥서를 중심으로하여 전조선적으로 검거의 손을 뻐처 경성、평양、인천、부산등지에서 공산주의 거두전부를 검거하여 함흥서에 류치하고 엄중취조하다가 작년십일월경 함흥법원검사국으로 송치한 정태옥(鄭泰玉)등 이십일명의 제일차조선공산청년동맹(第一次朝鮮共靑同盟)사건과 소화구년사월경부터 함주군흥남등지에서 역시 공산청년륙칠십명을 대량검거하여 엄중취조하다가 금년사월중에 함흥법원검사국에 김재용(金在鎔)등 이십사명만송치되여 이래 제일차사건과병합하여 동법원 예심계에서 심리를밧다가 지난륙월팔일예심이종결되고 사십오명다 유죄로결정되여 공판에회부되엿든 조선사상운동사상 최대의사건인조선공청동맹(朝鮮共靑同盟)사건의 제일회공판은 오는삼십일로 결정되엿든바 검사이동관계로 다시연긔되엿섯는데 구월이일 미전(米田)판사주임 서야(西野)민(閔)량판사배석 대견(大町)검사의립회로 제일회공판을 개정키로결정되엿다

百餘士兵에包圍 十餘警察隊苦戰
咸南對岸長白縣에 土兵熾盛 應援隊出動하야救助

【咸興】십륙일아츰 대안 장백현 신방자남강(新房子南崗)에로 변상황정찰로 출동한 신방자경찰서 유반장(劉)외십명이 동일 오후한시경 토병진단장(團長)의일대 백여명에게 포위되여 형세위급하다는 소식을듯고 신방자 경찰서에서삼십여명 응원대가출동하여 토병단과 수시간격전끄테격퇴하고 겨우 구조하엿는데 아직쌍방의피해는 알수업스며 장백현경무국에서 사태를극히 중대시하여 그날로 고산자(孤山子)분주재소원 이십팔명 팔도구 경찰서원이십명을 동지에급파하엿다

工夫行動에憤慨하야 列車妨害한農夫
東海中部線에서檢擧

【大邱】수월전에 동해중부선(東海中部線)에서는 긔차의 연괴로 입맥(立麥)을 몰래운반이 잇서 분개한 피해자가 렬차전복을계획한 사실이 잇섯는바 금번에도 철도연선의 농부가 수전에 피해가 철도공부에게 발각되여 봉변을 당한끄테 흥분하여 렬차를 전복하고저 큰돌을 선로에 두어 차륜(車輪)을 파손한사건 이잇다 보험부일 오전십시사십분에 아화역(阿火驛)을 출발한 열차가 간천(幹川)에 향하는도중에 대구긔점 오십칠키로에둔 큰돌과 충돌이되여 차륜은파손하엿스나 다행이 탈선전복을면하야 사람의 생명에는 하등피해가 업섯다 경주경찰서에서는 계획적 행위라하야 극비밀리에서 범인수사에 노력하든중 진범인 경주군서면신평리(慶州郡西面新坪里)김병태 고용인 신돌이(申乭伊)(一九)를 최근체포하엿다

婦女를襲擊한 街路의暴漢
어여분녀자용모에반해 犯人日本內地人逮捕

십칠일밤 아직도 통행인이 번잡한 아홉시 시내 명치정(明治町)삼정목 불란서교회엽 로상에서 갑작히 이러나는 조선녀자의 구조를 구하는 소래를 듯고 부근 명치정파출소원이 현장에 달려가자 웬유가다한 일본내지인 한명이 묘령의 조선녀자를 길바닥에 쓰러드린채 차고때리고 하는것을 검문하려는 경관에게까지 구타도주하려다가 필경 체포되엇는데 사실의 경위는 전기 남자는 영락정(永樂町)이정목 팔십삼번지에 거주하며 시내 모회사에 근무하고 잇는 횡전정일(橫田禎一)(三〇)이요 녀자는 황금정이정목 일백팔십구번지 원전(元田)모의 고 고잇든중 당일밤 맛침 전기장소에서 황옥섭을 맛나 로상에서 강제로 끌어 단니려 하매 황옥섭이가 반항을 하자 그외 가티 구타중상을 식힌것이라한다 그리하야 횡전은 경관에게 끌려가든 도중또다시 경관을 구타하고 일단 도주하엿스나 필경주격체포되어 본서에류치하고 엄중취조하는중이다

龍頭川에嬰兒屍

십팔일 오전여덟시경 부외룡두리(龍頭里)청량천(淸凉川)과 룡두천(龍頭川)과의 합류점에 생후 약오개월가량된 녀아시체가 표착되엿다는 보고를바든 동대문경찰서에서는 비전승(北田勝)사법주임이 현장에출동검시하엿는데 타살의혐의가 농후하야 대학병원에서 시체를 해부하기로 되엿다한다

게을르머슴을 殿打致死

【京城】십칠일오후네시경 경무국에도착한 보고에의하면 십륙일 오전열한시경에 경긔도 양주군와부면삼봉리(楊州郡瓦阜面三峰里)이백상십구번지 권영상(權永相)(三〇)은 지난 십일일에 지난오월부터와잇는 고용인김경수(金敬壽)(一九)를 일을 게을르게 한다고 꾸짓든끗에 서로 승강이 되여 전긔 권영상이가 호미를 들어 고용인의 후두부를 강타하고 발길로 배를 함부로 차서 중상을 입엇섯는데 피해자는 그동안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楊平郡 西宗面 汶湖里) 칠백오십삼번지 비천룡(朴千龍)의 방에서 치료를 하고 잇섯스나 약효를 보지못하고 십륙일 오전열한시 경에 드듸여 사망하엿는데 이를안 양평서(楊平署)에서는 즉시 범인을 체포 하려하엿스나 발서 가해자는 도주하고 업서 목하 범인을 엄탐중이라한다

些少한말성으로 船客을亂打致傷
被害者는傷害罪로告訴를提起 押海島渡船長의暴擧

【木浦】무안군 지도면 당촌리 김길상(務安郡智島面堂村里金吉相)이라는 청년이 지난 십이일에 압해도(押海島)를 경유하야 목포로 오든도중 압해도와목포간에잇는 도선장(渡船場)에서도선장 김남배(渡船長金南培)외긔판수 류행(柳行)과 선원박남렬(朴南烈)등에게 무수히란타를당하야 일시는정신도 이러버린것을 철도국병원(鐵道局病院)에서 응급수당을 바더 위험을 면하엿다는데 지난 십사일에 피해자 김길배는 가해자 삼인을거러 상해죄로 고소를 제긔하엿다는데 고소의 내용인즉 전긔 김길상이가 십이일 오후한시경에 압해도나루배인 빌동선에올라서 목포로오려할때에 선장이 시간을 지체하고 발선지 아니하므로 일행중 리판근(李判根)이란 사람이 선장을 불러도선시간을 물은즉 선장 김남배는 아여러 노하야 함부로 선객에게 폭언을 함으로 이를보고 잇든 김길상이가 너무 불친절 함을 말한즉 김남배는 맹호가티 달려드러 김길상의 두부와 얼구리로부터 전신을 차고밧고하야 입으로 코로피를 토케하고 다시 개바닥으로 끌고가서 진흙밧헤 미러넛코 해수를 부어기면서 실신이 되도록 란타를 하엿다가 여러구호자로 인하야 다시정신을 차리는 것을보고세번재 달려드러 혼수상태에 빠지도록 구타를하고는 가버렷다는데 이급보를들은 목포에잇는 친지는 인력거로 매고와서 전긔철도병원에서 응급수당을 베프러 (술을)를리엇다는데 외부상처는 이주일이면 치료가되겟스나 내부상처는 긔일을 단정할수업슬뿐아니라 마일록마연회하면 큰일이라한다 압해도 도선은 불친절로 정평이 놉흐므로 일반은 당연히 웅징하여야 한다고 여론이놉다고한다

酌婦에미처서 飮毒한看守
거리로방황

【木浦】목포형무소 간수 리선호(木浦刑務所李先鎬)(三七)는 지난십삼일밤열두시경에 목포치후소 부근송림에서 쥐잡는약을먹고 고민하든중에도 자긔의 자살하는 연유를 대서철호하며 꿈의나라에 김히잠긴 목포시민에게 호소한일이 잇섯다 리선호는 무안군 일로면 죽산리 (務安郡一老面竹山里) 사람으로 부내 무안통 금산 여관 (府內務安通金山旅館)에 류숙하며 목포형무소에 근무하든중 신경쇠약으로 번민하면서 며차례나 무안통영암관(靈岩館)이란 음식집에 드나들면서부지중 그집에작부로잇는 주금선(朱錦仙)이란여자에게 그만반하야 벼적인 그의심리는 걷잡을수업시 숩이여 남모르게 가슴을 태우기는하나 금선에게 대하야는 자긔뱃장을 털어놋코 설파할긔회를 엇지못하야 알아주는이업는 사랑의정회는가이업게도 열도는더하야 지난십삼일밤에 미리준비하엿든 쥐잡는약과 현금얼마를가지고 전긔영암관에가서 술을마신후 금선을다리고 자동차를 모라해수욕장으로가다가 금선은도로 돌여보내고 자긔만이 최후소부근에 올나가서 그와가티 약을먹고 금선에게 충정하지못한정회를 꿈에잠긴 목포시민에게 애소한것이라는데 이비절참절한 소리에 장을깨 부근인가에서는 경찰서에 통괴하는 동시 달여가 본즉 과연자살이 분명하므로 곳 의사를청하야 응급수당을 베플고 상반병원(常盤病院)에 입원식혓스나 생명은 구할수잇스리라한다

少年交通妨害犯
(前後五次、鐵道에置石!) 豫審終結、公判廻附

【咸興】긔차선로에나 도로상에 큰돌을노코잇다가 긔차나오차가 지나가다가 전복되는 파경을보고조화하는 번대적교통방해광(交通放害狂)이 잇서서 함흥법원에서 예심이종결되엇다 함주군주북면 홍덕리(州北面興德里)리진표(李鎭杓)는 소화칠년부에 작난으로 동리압 조철(朝鐵)선로상에 큰주먹마큼 한돌을노코잇다가 긔차가전복되는것을보고 크게쾌감을느기게되이후로 부터금년정월까지 전후오차나 도로철도에 돌을노아 교통을방해한것이 탈로되여 지난칠월중에 함흥검사국에 송치되여 예심리를밧고잇던바 십오일종결되고 공판에회부되엿다

社會課主催로 少年團指導會

총독부 사회과에서는 소년단조직체의 확충을 도모하고저 지난십이일에 전조선각지의 소년단지도자와 초등학교 교원등 칠십오명을 소집하야 시외우이동(牛耳洞)산록에서 캠프생활을

소년단련맹에서 주정(酒井)소장과 아옥(兒玉)씨등이라한다

教員講習終了

【新義州】평안북도 사립학교 교원강습은 금월오일부터 신의주제일보통학교안에서 개최되엿섯는데 강습생은 삼십이명으로 매우 성황이엇스며 지난십사일에 무사종료하얏다한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七六〇미리의 高氣壓은 日本南海上에서 朝鮮에퍼지고 滿洲方面은 氣壓이낫다 滿洲朝鮮이 다가리天氣가조코 中部以北沿岸은 處處에 안개가發生한다 日本內地는大槪天氣가조호나 東北地方은曇、北海道는南岸에안개가잇다

昨日 最高 三十三度一 最低 二十一度六

今日 正午 二十九度二

運動競技

緊張裡에開幕된 自轉車大會

大每主催 第五回全日本自轉車選手權大會의朝鮮豫選大會는十八日午前九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擧行한바從來에는 여러가지競技種目을 行한後 選拔하야 大阪으로 出場식혓스나 今般大會에는 特히 五千米만을 豫選하야 甲子園大會에出場키로 決定되엿다는바 이날 夕刊마감까지의戰績은 다음과갓다

五千米第一次豫選

▲A組 1李潤白(培材)八分五〇秒 2梁煥(北青)
▲B、C組 1安大根(平壤)八分二五秒 2金容七(平壤)
▲D組 1崔基泰(平壤)八分三三秒 2朴萬吉(平壤)
▲E組 1金雲鶴(平壤)九分四秒 2尹容順(京城)
▲F組 1孫基敦(大邱)八分四秒一 2金昌玉(黃州)
▲G組 1朴成烈(沙里院)八分二九秒六 2趙基陸(汶山)
▲H組 1宋麟贊(江原)八分四五秒 2張仁善(京城)
▲I組 1金根豫(新義州)八分四三秒 2李廷翊(京城)
▲J組 1兪泰根(仁川)八分四六秒 3李靑龍(京城)
▲K組 1金五長(京城)九分三一秒一 2成奉來(潭陽)
▲L組 1金乎河(沙里院)九分一一秒 2鄭用千(新義州)
▲M組 1金權河(沙里院)九分四秒 2李東根(京城)
▲N組 1金仁鍾(京城)九分五五秒 2崔鍾和(京城)
▲O組 1崔今鈞(京城)九分一三秒四 2李熙伯(京城)
▲P組 1任基德(京城)八分四五秒

五千米第二次豫選

A組 1李潤白(培材)八分五二秒六 2金雲鶴(平壤) 3孫基敦(大邱)
B組 1朴成烈(沙里院) 3安大根(平壤) 2金容七(平壤)

日本은第六位

【부다페스트十七日發電通】國際學生大會陸上競技는 第三日로써 終了되바各國得點은 다음과갓다

▲一等=匈牙利 四三七
▲二等=獨逸 三八三
▲三等=伊太利 一六〇
▲四等=첵코슬로바키아 九一
▲五等=佛蘭西 七六
▲六等=日本 七五

大邱水泳大會 廿四日에擧行

【大邱】大邱體育會主催로 卄四日 午後一時부터 東雲町府營풀에서 水泳大會를 열리인데 競技種目은 다음과갓다

▲自由型=五十米 百米 二百米 四百米 八百米
▲平泳=五十米 百米 二百米
▲背泳=五十米 百米
▲繼泳=自由型 二百米 百五十米메도레

甲子園中等野球

千葉3 大分2

中等優勝野球大會第五日의大分商業對千葉中學의第二回戰은十八日午前九時二分부터 阪神甲子園球場에서 大分商業先攻으로 開始되바 大分第一回初에 一點을先得하고 千葉第六回末에 一點을回復하야 一對一同點으로 第九回까지 갓스나 勝負업서 延長戰에들어가 十一回에 兩軍一點式을加하니 二對二 同點되엿다가 第十二回末에 千葉軍은 重審의一點을 得하야 結局三對二로 千葉軍勝利하엿다。

大分 100000000010
千葉 000001000011
3—2

育英11 甲府0

中等學校 優勝野球大會 第五日의 甲府中學 對育英商業의 第三回戰은 十八日 午後零時二十分부터 阪神甲子園 球場에서 甲府中學先攻으로 開戰되어 育英十一對零으로 甲府中學零敗하엿다

甲府 (000000000)
育英 (301510001A)
11A—0

國際學生競技 第三日戰績

【電通부다페스트十七日發】第六回國際學生大會 陸上競技第三日은 十七日午前十一時半(日本時間午後七時半)부터 開始한바 棒高跳에 西田、大江兩選手는 斷然壓倒的猛勢로써 西田選手는四米三〇을넘어優勝하엿고 大江은四米一〇으로 第二位를 마지하야 日本은 一擧에十一點을獲得하엿다 그리고五千米에는 田中二着되엿고 二百米準決勝A組에드러간矢澤選手는 元氣업서六着으로落下하엿스며B組의鈴木은三着한後 同決勝에서二一秒九의記錄으로 또三着되엿다 八百米豫選에는A組青地는四着되고 五種競技의 菊本은過勞로因하야 棄權하엿다 第三日 決勝五種目中의 日本은 三種目에 合計二十點을 獲得하엿지만은 第二位의 匈牙利二十四點을 다시加入하야 日本과의 得點差는七點인바 第一位의 獨逸은總得點數 八十一點을 獲得하야依然第一位를 빼앗기지안코잇다

▲棒高跳決勝 1西田(日本)四米三〇 2大江(日本)四米一〇 3할드맨(獨)三米…
▲二百米決勝 1히루브르(匈)二十一秒六 2홈스(英)二十一秒八 3鈴木(日本)二十一秒九

大田11 平壤10

鐵道局內 第二回對抗野球大會第一日의 平壤對 大田戰은 十七日午後二時二十分부터 鐵道球場에서 大田先攻으로 開始되바 十一對十으로 大田軍辛勝 閉戰五時十分

大田 (000000056)
平壤 (004040002)
10—11

日米水上對抗 第一夜日本優勢

【電通東京電話】日本對抗水上競技大會는 十七日午後六時半부터 東京神宮苑에서 擧行하엿다함은 昨報한바와가거니와 이날의日本軍은 米國을壓迫하야 큰優勢를 보이엿다

▲千五百米自由型決勝(得點日本六、米國零) 1石原田恩(日本)一九分二一秒 2牧野正藏(日本)一九分二一秒八 3根上博(日本)一九分二一秒八

▲三百米混繼泳(得點日本零、米國三) 米國팀 三分二〇秒二 (日本·國際新記錄)(드라이스델·게니스래·휘크) 2日本팀 三分二〇秒八 (日本新記錄)(吉田·小池·遊佐)

日本對抗水上第一日得點

	日本	米國
二百米平泳	五	一
百米自由型	三	三
千五百米自由型	六	〇
三百米混繼泳	〇	三
合計	一四	七

人體를不具케하는 梅毒性의恐怖 骨節諸病

初期 梅毒의 治療가 不充分하면、梅菌은當然히 表面뿐만안이라、潛在性이라고해서、毒素는內攻하야 內臟을 犯하며、梅毒性의惡性諸病을倂行한다。特히두려운것은、骨節사이가、針으로찌르는것가치 아푸게된다。一般的으로이런症을普通으로 류마치스와關節炎이라고、塗布劑等으로서 一時的療法을施行하지만 그러는동안에 病勢는漸漸惡化하야、骨節의痛症에끈치는것이안이라、

關節 이 不動케되며、無理하게 動하려 하면、참으로견될수업는激痛을늣기게되며。勿論、이와갓튼倂發症을그대로두면、生體지도안토●不具者가되다。根이梅毒性임으로서、骨은 次第로썩으며、그것이骨質을包圍한筋肉細胞에도 追及하야文字그대로骨도肉도까가(削)버리지안으면안되게됩니다。

이것이梅毒性、류마치스라던가 梅毒性의關節炎의絶頂이라고도할 수잇는것이여서、梅毒保菌者로서 中年以上의사람、血液循環이낫버서、動脈硬化等이잇스면、이래히 일어나는症狀이다。

베루 쓰丸(ペルツ丸)는、모다 梅毒性疾患에 對하야、참으로適合한 驅梅內服藥이여서、濁된血液과淋巴液을 淨化식히며、梅素를大小便과함께體外에排泄식히는結果、以上에서말한惡性의梅毒性류마치스와關節炎도、快癒케하며、血液의淨化에對하야、胃腸을强化하며、血色도增加하며、特히梅毒患者가苦痛밧는便秘、惡性疹外에、膽、遺傳梅、動脈硬化、脊髓癆等모다梅毒의第二第三期를通하야、服用하면豫期以上의効驗를認定하게되다。그리고注意할것은本藥品을服用하면、最後까지繼續하야、熱心히連用하면、그熱으로써반드시淸淨體를미지하게되는것이다

梅毒十症 누구든지必讀하라

다음病狀에近似한분은、하로밧비 適應藥베루쓰丸(ペルツ丸)을服用하여、그病根을一掃하라。

▽梅毒、體毒에 걸인사람
▽合、冷毒에 困難한사람
▽血液이 濁한 사람
▽脫毛와 목 쉰 사람
▽皮膚가루들르 틀한사람
▽貧血되고便秘 자즌사람
▽遺傳梅毒과腦梅毒의사람
▽全身骨節이아푼사람
▽頭痛잇고血壓이놉흔사람
▽早産流產에苦痛밧는사람

梅毒과體毒 梅毒性부름에 베루쓰丸

梅毒、體毒、痳毒、橫痃、濕毒、脊髓癆、腦梅毒、遺傳梅毒、류마티스、痛疾이皮膚病、梅毒性부름、여드름、動脈硬化症、梅毒性便秘等에도 性疾患에良効잇슴。

價表 六日分一圓·十二日分二圓·廿日分三圓·卅五日分五圓·七十五日分十圓·百六十日分卄圓·二百六十日分(徑用)卄圓 送料簡易로一包·代引十五錢增

東京市日本橋區檳町三丁目四十番地 發賣元 鈴木日本製藥社 社主 鈴木靖二 振替東京一〇五番 電話茅場八〇番·九〇番

代理店 京城 木村、新井 釜山 大黑、藤田

水電貯水池며난 百餘戶移民絕糧

長津郡當局에서重大視하고 道에食糧補助를要請

【咸興】장진강수전(長津江水電) 저수지내로부터 장진군 서한면 적수리(長津郡西閑面赤水里)로의 주말 제일기이주민 이백팔십호내에 이미일백구십오호는 침범할까지 이주 완료하엿는데 의주민들은 전부작년도의 흉작으로 인하여 식량이 전연업서 그아의참경에 빠지고 잇스므로 도당국에서는 지난 오월 십사일회사대표 류의삼(柳儀三)과 이주민 구조에 대한 협의를 거듭한 결과 『십원에 등어벌목(伐木)을 개시 할때까지 팔구월간에 도로개수공사로 하여그공사에 이주민을 사용하기로 결정되여 장진군 의주민지도소(移住民指導所)에서는 이주민들이 해공사에 출역할것을 예상하고 위선 만주속(滿洲粟)이천오백사십삼표와 기타 식량품을 언행의고구등 합계 사천오백구십팔원팔십전을 선대(先貸)하엿든바 그후 태도로공사는 예정(豫定)에서 반이나 축소되여 먼저 선대한 입금도 도로 상환할수밧게업스며 절량(絕糧)된지십여일이 넘어도 다시 식량을 배부할길이 업게되엿스므로 목하 동이주민들은 극도의 곤궁에 빠저잇스므로 지난 팔일부로 장진군에서 함남도 당국에대하여 다른 토목사업을 지금개시할것 그러치안으면 식량비 칠천오백팔원팔십전을 보상하여달라고 청하여갓는데 동이주민의 전도는 극히 암담하다고 한다

七名中六名釋放 一名은不日送局

元山메ー데檄文事件

【元山】지난 사월십삼일미명에 원산시내 각학교문전과 공장부근에 오월일일 메이데이에관한내용이과격한 격문을첨부한 사건으로 원산서에 피검되엿든 원산부본정오정목 상백이번지(元山府本町五丁目)황인범(黃仁範)(二○)외륙명은 이래 원산서의 취조를 밧고잇다가 전긔 황인범을 제외한 륙명은 모다 방면되엿다는데 남어지황인범은 근일중 일건서류와함께 원산검사국에송치하리라는바 이제 그들의 활동내용을 들어보면 그들은 모다이십세내외의 청소년들로서 재작년 정월십팔일과 작년십일월에 로서아혁명기념일 금년사월십삼일의 삼회에 긍하야 원산시내에 첨부한사건이라는데 내용이불온한 격문을 수서하야 그들은 어떤조직체를 통하야첨부된것도안이고 또한 어떤유력한조종자가잇서서 사촉한것도안이고 다만 그들팔명이 한것이라고한다

留學生會主催 音樂大會盛況

【定州】정주유학생회주최 음악

身病을悲觀自殺

【金海】경남 김해읍 부원동(金海邑府院洞)에사는 전인도(全仁道)(二七)는 수년전부터 폐병으로 신음하엿스나 구차한살림사리에 약한첩 쓸수업는형세이므로 신세를 비관하고 십륙일 새벽에 집안사람이 잠든틈을타서 집압 우물에 빠저죽은것을 발견하엿다한다

結婚의干涉을 죽엄으로反抗

【光州】현재광주녀자고보제사학년에 학적을둔 십팔세된 꼿가튼묘령의 처녀문례(文禮)라는녀생도는 자유련애를 위하야죽엄으로써 부모의결혼간섭을 항의하엿다한다 그진상에 대하야조사한바에 의하면 전긔문양은당지본정 오정목백번지에 집을두고금융조합 련합회 전남지부에 직을둔 박모(朴某)(二○)라는 남자와 일즉부터 세인의 눈을 피하야가며 사랑의 단꿈을 일우고 잇든바 최근 그의 부모로부터 자긔가 아지못하는 남자와 결혼 하라는 선고를 밧고이에 처녀의몸정한하다가 자긔의자유로운 리상을 희생하고 서는 생(生)도 무의미라는 구든신념하에 지난십사일 하오사시경에 그의 본가인 당지본정오정목팔번지의 자긔침실에서 목을찔라매여 자살의길을 도하엿다한다 그리하야 이동남사건을 접문한 광주서에서는 남녀량편의 가족들을 동서로 다려다가 그경위 전말을 취조하엿스나 타살의혐의가 전무함으로 결국돌려보내엿다고한다

失踪幼女溺死

【城津】성진읍 욱정이백칠십삼번지 박태삼(朴泰三)씨의 삼녀순영(順英)(一)은 지난십이일 오후시경에 시불동되여 그가각방으로 그을 조사하고잇든중 지난십오일에 성진항구미 바다에서 익사체로 나타낫다는데 탐문한바에 의하면 지난십일일 오후에동모들과가티 바다가에 나갓다가 험한파도에 상키여 그와가티익사되것이라는바 성진서는 급변에 들어 바다의 처회생자라고한다

普校生死因은 病死로判明

【馬山】작보=마산공립보통학교 일학년생 송자조(宋次祚)가 동교일년생 최치대(崔致大)(一)가 자긔를 『여정이』라는데 명술부처 부른다하야 귀싸대기 으로 두부(頭部)에 상처를입고 병석에서 며칠신음하다가 돌연 사망하야 선생이학생을 구타치사하엿다고 마산사회의 물의를 하야 사건의해결이 극중대시되든바 마산경찰서에서 여러가지 방면과치료의사의 진단상황을참작하여도 그사망의원인을 잘알수가업서서 동서과장등이 구구하야 사건의결말을 못짓게되든바 지난십사일오후한시 당지도립의원에서 해부한결과 타살이라는것은 전연근거가 업는터이고 회충(蛔虫)의발작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엿던것이 판명되여 일시떠들든문제도안정되고 일반의의혹도 풀니게되엿다한다

咀呪할生活難! 男妹가一時에絞殺縊死

保寧郡에서생긴慘劇

【保寧】충남보녕군 웅천면평리(保寧郡熊川面坪里)에서는 자긔의 녀동생을 노끈으로 목을졸라죽이고 딸아서 자긔도 목을매달어죽은 듯기에도 소름끼치는 참극이연출되엿다! 리면을조사한바에 의하면 본적을 부여군구룡면용당리(扶餘郡九龍面龍塘里)에둔 김수긔(金壽其)(三七)는 일즉이 부모를 여이고 조모슬하에 동생남매를 다리고 빈한한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생활을 부지할 도리가 업서서 생각다못하여 자긔조모 구씨(具氏)(七○)와 녀동생순긔(順其)(一六)와 남동생영긔(榮其)(一七)를 다리고 작년봄에 그내종되는 보녕군웅천면평리에 거주하는 임명재(任明宰)(假名)의집을 차저와서 조모와그동생 남매를 전긔 임씨에게 생활을부탁하고 자긔는 동리김모(金某)의집에서 고용사리를하든중 지난칠일에 무슨까닭인지 전긔임씨의집에가서 자긔의 조모와남동생을 당분간 구제하여달라고 부탁하고 녀동생순긔(順其)는 내가다리고가서 걸식(乞食)이라도가티 하것다하고 나가서뒤동산(동매이)에서 그러한 참극을 이르켯는데 시체는 지난십사일에 동리사람이 나무하러갓다가 발견하고 즉시 경찰당국에 보고하엿슴으로 보녕경찰서에서는 리사법주임(李司法主任)이 추원의사(秋原醫師)를대동하고 현장에출장하여 검시까지하엿다한다

안해의冷談에憤激 路上에서亂刺致死

順川郡下의慘劇

【平壤】사랑하기 때문에 안해를 칼로 찔러죽인 사나히가잇다——십삼일 오전구시반경 순천군사인면(順川郡舍人面)평원선(平元線)봉학역(鳳鶴驛)서편 약一里) 변주영(邊柱榮)(二七)은 처 김군화(金君華)(二○)와 싸홈을 하다가 군화가 여러말할것업시 헤여지면 그만아니냐고 냉정히 말함에 분개하여 주머니에서 손칼을 꺼내여가지고 군화를 난자하여 즉사케하고 행방을 감추엇는데 대참사가 잇섯는데 마츰 통행인이 참경을 발견하고 소관순천서에 급고하여 동서에서는 즉시 서원을 비상소집한후 이중삼중의 수사망을 느리고 범인을 엄중수사하엿스나 원체 산이험악한만큼 십륙일까지에도 체포치못하엿다는데 그는 대담히 동군 자산면 제일리(慈山面第一里)산중 로상에서 수사망을 뚤코 부락에 나타나서 음식물을 구해가지고 다시 산중으로 달어낫다는 정보까지잇서 이에 순천서에서는 사인장(舍人場)의 소방청년단의 응원을어더 계속 엄중수사중이라는데 그는 사람을 죽이고 또손에칼이 잡히여잇서 부락에 나타나 음식물을 구함에 어떠한 행동을 취할는지하여 부근농민들은 일대 불안에 싸여잇다한다

師範附屬普校 來年度에는實現

【平壤】평양사범학교부속보통학교설치문제에 대해서는 다년간 현안으로 되여 잇섯든바 명년도예산에는 계상이될 모양이다 이 보통학교는 구학급으로 일학급 사십명 합계 삼백륙십명을 수용할 의향이나 평양동부선교리(船橋里)거주의 아동을 수용함에 넘우도 불편한바 잇스므로 어떠케 해서던지 꼭십오학급정도의 학교를 설치하도

棍棒든十餘青年이 鄉約長區長等을亂打逃走

原因도誰某도모다몰라

【明川】명천의대검거사건이 단락을보기도전에 또다시 놀날만한중대사건이 발생되엿다=지난십오일오후십시경에명천군상가면수동(明川郡上加面水洞)향약장(鄉約長)인현양극(玄陽極)씨집에는 대문박게서 농봉목소리로주인을 차짐으로 현양극씨는 잠을깨여 의복을입고 문박게나간즉 문박게서 『잇스면대려라 쏘여라』하는말소리에 현양극씨는 겁이나서 얼는집후원에 피신한즉 십여청년이 그냥집을습격하야 가족전부를 무수란타하고 그길로 수동구장박태욱(水洞區長朴泰郁)의집을 다시습격한즉 박태욱은과수원(果樹園)에서 잔다함으로 군중은다시 과수원에 달려가서포위한즉 박태욱역시 몸을피하야 도주할지음 다수청년은 이를추격하야붓잡고 무수란타하야 삼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입힌후 어데로인지 도주하얏다는데 이급보를접한 소관양촌주재소(陽村駐在所)에서는 범인수사에 대 [illegible]

平原學友會主催 教育講演의밤 八月廿一日夜에

【順安】평남 평원학우회(平原學友會)에서는 본보순안지국후원하에 숭실전문학교교수 최윤호박사(崔允鎬博士)를 초빙하야 오는팔월 이십일일밤 여덜시반부터 순안의명학교(義明學校)강당에서 교육강연회를 개최하리라는바 일반회원은 물론이고 기타 유지도 다수히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全朝鮮個人庭球 廿五日沙里院서

【沙里院】사리원 체육회주최와 본보지국후원으로 제삼회전조선개인정구대회를 오는팔월이십오일조철코ー트에서 개최한다는데 참가금은 일원이라하며 신청기일은 이십사일 까지라고 한다

地方運動競技

全朝鮮個人庭球 廿五日南浦에서

【鎭南浦】진남포 체육회에서는 제일회 전조선 개인정구대회를 오는 이십오일 동아, 중앙, 조선 세신문지국 후원으로 당지 고등녀학교 코ー트에서 개최키로 되엿다는바 상세한것은 다음과갓다하며 진남포에서 처음되는것이니만치 인긔가 집중되여잇고 주최측에서 준비에분망중이라고한다

時日=八月二十五日午前九時
場所=鎭南浦高等女學校코ー트
申請=八月二十三日까지
參加費=一組五十錢
競技規定=朝鮮庭球規定에依함
賞品=一等優勝盃와現金三十圓 二等現金二十圓以下四等까지

新北青 庭球、鞦韆盛況

【新北青】본보신북청분국후원인 북조선 정구、추천대회는 지난십일일 오전십시부터 신북청가설운동장에서 개막되엿는바 농한기를 리용한 관계로 지방농촌으로부터모여든오천여명의 관중으로 대성황리에 진행되야 정구는 십이일오후삼시에 끗나고추천은 십삼일오후삼시에 무사폐회되엿는데 당일의우승자는 다음과갓다고한다

◇庭球=咸興(南)優勝 ◇鞦韆=一等 李明珠 二等 李庚子 三等 金重順

洪城脚戲大會 來廿二、三兩日

【洪城】홍성읍내 오관리시민주최와 본보외두지국의 후원으로 납량위안각희대회를 오는 팔월 이십이、삼일간(陰七月二十四五日間)개최키로 되엿든바 원근선수의 다수참가가 잇기를 바란다하며규정은다음과갓다고한다

一、時日=八月二十二、三日
一、場所=洪城邑內市場
一、賞品=毛牛、銀牛外副賞

地方人事

▲金□旭氏(步兵第七十四聯隊附陸軍步兵少佐) 新任人事次本社咸興支局來訪
▲金秉植氏(金海郡庶務主任)新任人事次本社支局訪問
▲向野滿利氏(金海郡庶務主任) 同上

鎭南浦 全朝鮮個人庭球大會

▲時日 八月二十五日午前九時
▲場所 鎭南浦高女코ー트
◇主催 鎭南浦體育會
◇後援 朝鮮外兩支局

洪城 納涼慰安脚戲大會

▲時日 八月二十二、三兩日間
▲場所 洪城邑內市場
◇主催 洪城邑內五官里市民
◇後援 朝鮮外兩支局

沙里院 全朝鮮個人庭球大會

▲時日 八月二十五日(雨天順延)
▲場所 朝鮮鐵道會社코ー트
◇主催 沙里院體育會
◇後援 朝鮮日報沙里院支局

그女子의一生 (186)

春園 作 / 夕影 畫

향랑편

금봉에게는 광진의 의사가 대강 짐작되엇다. 이번에 난 아이가 제 씨가 분명하다는것을 증거하기 위하야 우선 제 누이에게 정선의 선을 보인것이엇다. 이것이 금봉에게 유쾌한 일은 아니엇지마는 그래도 광진의 성의만은 인정되여서 깃벗다.

그래서 어린애이름을 짓는것이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나 광진에게 맛겨버리고 금봉은 가만히 잇기로 마음을 작정하엿다.

금봉은 병원에서 이주일을 지내어서 삼청동 집으로 돌아와서 전과가티 세월을 보내고 잇섯다. 유모도 젊고 깨끗한 사람 하나가 오고 광진도 자조 와서 잣다.

세이레가 지내어도 어린애의 이름을 짓지아니하엿다. 금봉은 제 마음대로 이 어린애를 아담이라고 불럿다. 그것은 아비가 업다는 뜻이엇다. 어린애는 루실루실하고 잇벗다.

백날을 메츨 안남긴 어떤날 광진은,

『집에서 어른들이 이애를 좀 보자고 하시는데』

하는 말을 비치이고 은행으로 갓다. 얼마 아니하여서 가회동에서 과연인력거와 사람이 왓다. 대감과정경부인께서 애기를 보고십흐니 보내시라고, 그 동안에도 보고 시펏것마는 소중한 애기가 감긔가 들까보아서 날이 더워지기를 기다리신것이라고, 애기를 유모에게 안겨서 바람 안 쏘이도록꼭싸서 인력거를 태워서 보내라는 것이엇다.

금봉은 한편으로는 올치 인제는 되엇고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잠시도 겨틀 떠나지안튼 어린것을 비록잠시라도 내어노키가 섬뜩하엿지마는 아니 보낼수도 업서서. 물을끌혀서 목욕을시키고 머리까지 말짱이 감기고 전신에 향긔로운 분을 발르고 새옷을 갈아입혀서,

『이만하면 누가 본들 잘난아이라고 아니하랴』

하고 만족과 자랑을 느끼면서 그대로 유모에게 내어주엇다가 다시 빼앗아서 젖을 물리고차마놋치못하엿다.

떼어버리라고까지 하던 원수엣 아이언마는 나하노코 보면 세상에 제일 귀여운것이엇다. 벙실벙실 웃는양이나 팔다리를 가동가동하는 양이나 보드라운 그입이 젓꼭지를 무는양이나 모도견딜수업이 사랑스러웟다.

『아담아, 할아버지 할머니 가 뵙고 칭찬 만히듯고 와!』

하고 금봉은 다시금 어린애를 들여다보고 입을 마초고 뺨을 대고 겨안고 하다가 마츰내유모에게 안겨서 인력거를 태워보내엇다.

아담이를 보내고나니 금봉은 정신을 일흔것 갓다. 텡븨인것을 깨닷앗다. 대문으로 뛰어나가서 아담이가 타고가는 인력거를 바라보려하엿으나 벌서모퉁이를 돌아서 보이지아니하엿다. 금봉은눈에 뜨거운 눈물이 그뜩하여서 안으로 뛰어들어왓다.

정선이가 동생한테 빼앗겻던 어머니를 독차지하게 된것이 깃버서,

『엄마!』

하고 정선에게 매어달렷다. 정선은 오래간만에 정선을 안아주엇다. 정선은 만족한드시 엄마의 젓꼭지를 물고 한손으로는 다른 젓꼭지를 만적거리고 한 손으로는 엄마의 등을 또 닥거렷다. 그립던 어머니를 오늘이야 만낫고나, 하는듯 하엿다.

금봉은 정선의 나풀나풀한 머리를 만져주고 폭은폭은한 볼기짝을 두다려주엇다. 그리고어미를 그리워하는딸의 정경에 눈물이 흘럿다.

아담이를 일흔 금봉은 마음을 붓칠 곳이업서서

『어째 아직도 우리 아담이가 안 올까』

하고 자리를 잡지못하고 서성거렷다.

『그러케 수이보내시겟서요?』

하고 할멈이 겨테서 중얼거렷다.

금봉은 장도 두저서 여름사리도 마져보고 피아노도 다아보고다락세간도 뒤져보고 아담이의기저기도 개어보앗다.

『네시를 친는데』

하고 금봉은 아담이가 벗어노흔 옷을 코에 대고 그 젓내석긴 살내——어머니만이 아는 그 자식 냄새를 맛핫다.

불현듯 상해로 갓다가 향항을 거쳐서 남양으로 갓다던 남편 생각이 나고 황씨와 함께 태허법사를 따라간 뒤에 소식이 망연한 옵바 인회의 생각도 낫다. 다들 어떠케나 되엇는지? 하고 금봉은 무릅우에 빨래를 올려노흔채 멍거니 허공을 바라보고 잇섯다.

放送

十八日(日曜)

◇午後六時三○分 童謠齊唱과獨唱 一、齊唱 너구나구 등이서 二、獨唱 고향하늘 三、齊唱 달알 四、同 힌옷배 五、獨唱 미깡배 六、齊唱 달잡이 七、同꼿 八、同여름 九、獨唱 별님 忠信學院兒童 伴奏 金龍燮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話 最高道德 李東旭
◇同八時 제비가外 一、제비가 二、寧邊歌 三、개성난봉가 四、양산도 五、청춘가 六、노래가락 七、창부타령 玄山玉 細笛 高敬德
◇同八時二五分 唱劇調 一、短歌 鎭國名山 二、唱劇調 赤壁歌 丁貞烈 鼓手 池龍九
◇同八時五五分 名曲鑑賞(레코ー드演奏)피아노와管絃樂 皇帝協奏曲 베ー토ー벤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아다ー지오운포코못소 終結章론도(알레그로) 朝鮮音樂家協會 解說 玄濟明
◇同九時四五分 時調 一、平時調 二、사설時調 三、지름 蔡奎應 金明洙

十九日(月曜)

◇午後六時三○分 管絃樂 DK管絃團
◇同六時五五分 產業뉴ー스 續하야 經濟解說 李肯鍾
◇同七時三○分 뉴ー스 天氣豫報
◇同八時 趣味講話(一) 山岳과文學 海洋과文學 梨花女專文科科長 金尙銘
◇八時三○分 遊山歌外 一、遊山歌 二、船遊歌 三、小春香歌 四、京山打鈴 五、방아타령 張香蘭 孫瓊蘭
◇同九時 獨唱 一、사랑을誘引하는藥中「나모르게흐르는눈물」…도니체티作曲 二、리고렛도中「이것도 저것도」…베르디作曲 三、파우스트中『오ー나의 가련이여』…쿠노作曲 四、카발레리아·루스티카나中『오!로라』…마스카니作曲 五、라보엠中『차듸찬손』뿌치니作曲 崔昌殷 伴奏 李升學
◇同九時三○分 로막漫談 一、理想的避雷針 二、珍奇한試合 三、進步된整理斷行 四、長生不老藥 五、레코ー드·오ー더라의吹込 六、五大藝術 金永煥

二十日(火曜)

◇午後六時三○分 童詩朗讀 尹石重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 經典解說(一) 李欽榮
◇同八時 趣味講話 山岳과文學 海洋과文學(二) 梨花女專文科科長 金尙銘
◇同八時三○分 雅樂——李王職雅樂部員 一、瑞鶴頌(細樂) 二、乾坤歌(歌詞) 三、長春不老之曲(合奏) 李王職雅樂部員 指揮 雅樂師長 咸和鎭
◇同九時 라듸오 드라마 史劇 全三幕 洒水와落花岩 ……林仙圭作

(配役)
義慈王……金貫波
王妃……朴敬愛
太子……林仙圭
月姬……文藝峰
福信……李敏煥
義直……朴銀波
達永……李雲影
元昌……李雲湖
其他,宮守,興忠,馬夫,兵卒等
出演=林綠水
序幕及效果=李銀河 文藝座
李雲影 唱

曆

八月十九日(月) 舊七月癸未(大)廿一日
丁卯·火·弱·危
●祭祀·祈福·移徙·裁衣·上樑午時 安葬·啓攢에宜함
▲立秋八日(舊七月初十日)
▲末伏十二日(舊七月十四日)
▲處暑(廿四日)(舊七月廿六日)

Columbia

コロムビアポータブル
(콜림비아포ー타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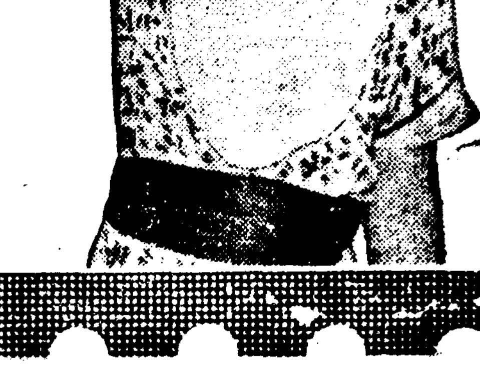
新發賣

★諸大家의讚辭★
山田耕作氏曰
久米正雄氏曰
野村光一氏曰
鹽入龜輔氏曰

들으시면 驚嘆하실 그良音!
가지시면 驚嘆하실 그輕便!
사보시면 驚嘆하실 그廉價!

第五五號 金二十五圓

重量오직 一貫二百匁 (四·七五瓩)



●最新式裝備●
サウンドボックス(最新型スパイラル·リップドダイアフラム附サウンド·ボックス)
モーター(強力特許ガバナー附構造スプリング式大型モーター)
音管(最新型インヴテリアブル)
★自由式自動停止器

今夏에二大豪華盤
夕日は落ちて 豆千代 松平晃
松竹蒲田映畫歌 船頭可愛や 音丸

製造發賣元 株式會社 日本蓄音器商會

學生文藝 特輯

農村點描

京城法政 丁衡鎭

金兄! 大地를 녹여버릴듯한 太陽은오날도 나려쪼입니다 아츰부터들여오든 도리깨질소리도 이제는숨이 갈린듯합니다。

이酷暑의 惡漢?은 서울이나 시골이나一般 정말모든일에 나의理氣는 限度되비 적지안습니다。그래서 서울서 꾸며가지고온 푸로그람은 한가지도 實行되지못하고 다만바이랑과 논뚝길을걸어서 箕田가티 들판올한바퀴돌아단이는것이 日課가 되여잇는것입니다。

金兄! 나의조그만한

幸

運을 웃치는 말아주시오 都市에서 그리워하든시골의 찬바람 구리고日光검푸른들판에 穀食들이 成熟하는香氣 이것을 내마음것 呼吸할수잇는 滿足이엇습니다 서울의거리에서 讚歎되는 악착한殺風景만 보든眼目으로는 想像도못하엿든 平和의 부스렘이가 아즉도 숨쉬고 잇는듯합니다。그래서詩와 繪畵의素材가 비저지고잇는것이며 이에서 내自身은노래하지못하는 종달새처럼 흔자서 무엇인지 말할수업는 感興에 陶醉할때도 잇습니다

이것은 나에게맛겨진 가엽퍈平和의꿈입니다 이꿈이깨여질때는너무나 쏘慮한나의그림자를 나는發見하는것이며 이떠지를쓰는理由도 거기에잇습니다

金兄! 이것은바로며칠전에 일어난事件의한토막입니다 나는

每

日과가티 점심을먹고는 논뚝길을 것고잇섯습니다 바로그때건너편논뚝에는 무서운光景이 버려젓습니다 한사람의農夫는 다른한사람의 農夫를『광』이로쳣습니다 그리고마즌農夫는 悲鳴과함께그자리에 쓰러젓습니다

나는이것을보고 完全히無意識的으로 現場을달려갓습니다 그때에도광이는놀을고때린 農夫는거의 發作的으로무엇을 중얼대고 섯스며 마즌農夫는 全然意識이업시 업더젓는데 맘얻는 鮮血만 풀바를 물드리고 잇섯습니다。나는 너무나 이光景이 무서워서 떨엇습니다 이것을 殺人이라면 너무도 故意가 업서보이고 싸홈이라면 過히 慘酷하엿습니다 얼마후 나는 精神을차려 가젓든 手巾으로 農夫의

傷

處를 동여매고 나무그늘로 옮겨다 눕혓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사람들은 모혀들엇고 兩便家族들도 뛰여왓습니다 그래서 그家族들과 그들을 支持하는 이웃 사람들은또한 兩便이 갈리저서 조금 大規模의싸홈이 버려젓습니다 男子들은괭이와 막대이를휘둘느고 女人들은高聲을치며 그리고가리죽지느니 살려노흐라느니、울며불며덤비엇습니다 이러케攻擊과防禦가 한참동안 猛烈하엿습니다

金兄! 나는이때이싸홈에 偶然히서서보앗슬뿐이지 손을대여볼아무勇氣조차도업섯습니다 그것은 그네들의싸홈이너무컷고 愚예밧처 할무로덤벼들고 生死를가리지안는것도 한가지理由이지만은

그

네들의싸홈이 이와가티 展開된根本理由도 亦是 것든것입니다、그것은 그네들의全生活을 左右하는논에물을 너키려한 싸홈이엿습니다 이물을 못니호면 논바닥은말나 龜列하고 벼스모는 모다타서 업서지는것입니다。이벼스모가 타서업서진다는것은 그들의生活이餘地업시 破滅된다는것과갓흔意味이며 그러케되면그네들의 家族은먹을것을求하야 流離하지안으면안되는것입니다、

金兄! 勿論農民의生活을 우리가平素라도 아조理解하지못한것은안이지만 그들의感情도亦是그들의生活과갓치 單純하고 素朴하면서도 어느한편은 勇敢하고 猛突的이여서

싸

홈을하여도 所謂서울의 紳士級에서는 볼수업는참다운맛은잇섯읍니다、사람에게結果에對한 認識이가슴 條暇가

가장무서운瞬間이 죽엄을 두려하지안는瞬間이며 또한무섭게덤벼드는瞬間이 生死라는 極端의境界가 서로連絡되여잇는瞬間일것입니다。그리고 그들 農夫들이가젓든瞬間도 꼭그러한것이엿습니다 即 어느한편이 논에물을넛치못하면 그結果는죽엄과도 가튼것입니다 죽는것보다는 싸워서라도 살어보겟다는것이 그들의心境이며 사람이 가질수잇는 本能의 發露일것입니다。

金兄!이싸홈보다 더强하고더重大한理由를 가진싸홈이 어데잇겟습니까?그네들의 戰鬪樣式이 너무粗朴해서 相對에對한認識에는

錯

誤가 잇섯다고하드래도 그네들의 切迫한事情은이것이唯一한 手段인것이며 當面問題의 解決策이엿든것 입니다 그네들見解는 이것外에는 아무도니가업는것입니다、어느餘暇에

잇것스며 現志의活動이 잇것습니까? 現마안이라 그네들의生活은 이거의本能的인 衝動으로도 滿足한것입니다、

金兄! 是非曲折은 어지되엿든無慘한 悲劇이엿습니다 그리고이人間全體에 責任이 遞滿되여잇는 이싸홈은 피루섬이 그대로 洞里사람들의손을 빌어서 兩便家族의집에 갈려갓습니다 그後 며칠을 지나서 따리農夫는 마즈農夫를 차저가서 서로붓잡고 소리처 울엇다고 洞里사람들에게 들엇으며 나는밤새도록 생각해보앗읍니다 大體이싸홈을 누가말니며 엇더케말닐가를! 그러는동안에 짜른여름밤도새이고 이고요한마음에 如前히아츰해가 떠올너왓읍니다그래서 이것을 쓰면서 兄의消息을기다리고잇읍는다

金兄! × ×

더우는 漸漸本格的으로 드러감니다 그러고 요사이는 在日과가티

들

판을 도라단이는것도 그만 中止하고 말엇습니다。그것은 日氣가 너무더워서 그러한것이 안이고 나로서는 너무나無知한 그사람들에게 적지안흔幻滅을 늣겻습니다。이글을쓰는理由도 그한가지입니다。

金兄! 오날도 우리洞里에는 새로운事實이 한가지일어낫습니다。머저알려둘이事件이 너무現實的인데比하야 今番의 事件은 超現實的인데 興味가잇는것이며 前事件의結果가 圓滿히 解決된데 比하야 이事件은徹底한認識을 結果할것갓습니다。

우리이웃집은 매우넉넉한살림을하는 地方의有志입니다。그집 女主人公이病이라면 勿論漢醫洋醫가 遺憾업시動員이되는것은

疑

心할餘地가 업는것입니다。그러나 어지되엿든것인지 나가기는[illegible]

重하여진병이엿섯는데 그家族들은 患者自身이 아무顧이나언게 殷害을다한다고 巫女를다려다가「굿」을하엿든結果 그第二日만에患者는 完全히나어서起動을하엿답니다。이러케되매洞里의 우물길에서나 방아間에서든 얼마나수군대겟든가는 想像하실수도잇는것입니다。그래서洞里사람들은누구나할것업시 奇蹟에 驚歎하는것이며 醫師와藥의無能을 嘲笑하야 끗헤는 現代科學의全部를 否定하기도 주저하지안습니다 甚하면「醫師나 藥劑師들이무엇을하느냐」고도하고 「돈이나 떼여먹지」하며巫女나 迷信에對한信念은 보담더 確固하게만드러집니다。

金兄! 이偶然한事實은 無知한 農村사람들로하여금 迷信의구렁으로 쓰러넛키에는 너무나

豐

富한 材料가되고 偶然이라기는 너무나 奇蹟的으로 보이게되엿습니다 現在「굿」을하자면 어느곳이나 그런것과가티 警察의 許可를맛기는한답니다。그러나 相當한理由만잇스면 얼마라도 許可를 한다니 「그相當한 理由」란 엇더것인지는 모르나 벌서「굿」이란것을 한다는데야 理由와 口實쯤이야 얼마라도 잇슬것이 아닙니까? 旣往迷信을否迷信으로아는以上에야 巫女라는 存在價値가 어데잇는가? 하는것이나에 괴롭게알고 접습니다 醫藥에 效果를 못본다는 農民들의말도 全部가 거짓말이란것은안입니다 이러한 農村에야 무슨 醫療의 設備가잇습니까? 萬若잇다고하면 그것은 特殊한存在로서 特殊한 사람들에 信用이되는것이지 一般의 農民에게무슨所用이 잇겟습니까?

都

市消費群의 生命이 安全하기爲해서 이러한農村의 勤勞하는 사람들에게는한사람의醫師도업시 그대로生命이危險을밧는것을 누가알사람인들잇겟습니까? 다만한사람의公醫가면千名의 生命의防風林이되여잇다면 그도돈이잇서야하는것이니 果然無知만이 그들의 運命일너지도다시압외리다

金兄!

오날의이消息을 드리는 自由를 나에게容恕하시요單純한事實이나마옷고치우지는못할일입니다

우리건너집 得甫는 그다지똑똑한 사람은못되여도 매우勤實한 農夫이엿습니다、그러나 어제밤그의절무妻가逃走를하엿답니다

金兄! 都市의나든庭女들이들뜨는

虛

榮에 바람이 나서 戀愛逃避行을 하는것과는이것은 너무나相距가 멉니다 굼주리다못하야 살길을 차저갓다고하면 거짓말갓지만은 참말입니다 何如間得甫는 하로終日울엿답니다 그리고다라난妻를 차즈려고나갓다나요

金兄! 나는 이말을자세히듯기前에 得甫를 薄情者라고生覺하엿습니다 그리고 得甫에게서 男性이가즐수잇는 自尊心을疑心하지안흘수업섯습니다 그러 그는곳後悔햇습니다 이것이곳나의生活의傳統에서 나온觀察이란것을!

金兄!得甫에게 妻라는存在는果然一個女性으로서 存在만은간이엿습니다 그날그날生活을維持하기爲한 重大한役割의分擔者엿든것입니다 萬一得甫가 妻가업다면 그나마짓든 農事도 못짓게되다는것은 明白한事實이겟지요! 그뿐안이라 得甫가새로妻를엇는다는것은

소

가바늘구멍으로 나가기 보다 어려운것입니다 勿論經濟가容恕도안으러니와 누가딸을줄사람이 잇겟느냐는것이問題입니다 이네들의夫婦生活이야말로 얼마나愛慾에서超越한 生活의分業的役割을하고 잇섯든가를生覺이 나해서보구려!

金兄! 인제는밤도밝서 열한時나되는이껌벅어리는 燈盞불조차꺼졋습니다 빈대의서울을쪼겨오나는 이시꼴의모기와벼룩의 總攻擊을밧고잇음니다 그러나염려는마시오 나는이모기와벼룩들에게는 아주구라!산의威嚴을 發揮할수가잇으니가!그리고 내엽혜는數만흔 農夫들이明日의勞作을꿈꾸고는이잇읍니다 (一十一)

三防의하룻밤 ★

延禧文科 李元馥

佇可嗚에 들끌는 旅館집빠이꾼들의 아우성소리도 끗쳣습니다 한모금이라도 더먹게다고 몸부림치며 民蛇陣을 치구잇는사람들도 다! 잘들엇습니다 三防의밤거리는 投錢꾼들의 조심성스러운말소리와 사람을 속삭이는 숨갑분 목소리 만이 玆를으로 새여나와 이거리를직히고잇슬뿐 조용합니다 조용하여것습니다。숨게랍을 過히먹은 사람의 머리속가티 흥성 흥성하는풀을 웅켜쥐고 다래덩쿨 집행이를 끌어 적막으로 오는두려움을 위협하며 洗心川가 땀로 나와섯습니다 물소리에 맘식히며 달빗헤 노래불너 洗心川의 달밤을 혼자즐기 옵니다。이밤을 혼자 獨占한 내心情은맛치 개선將軍의心情을 맛보는듯하외다。지금나는 玄武岩 두두려저 물거품지우는 바우우에안저 집행이로 물장난을 해봄니다。

물은 바위들을 움처 돌면의 가진 히롱을받어가며 몸은당을겨안고 달으둘에안기여 춤의박자옥을 유유히 옴김니다

군데군데 힌人造견을 갑어노흔듯은모래를밤퍼런듯!독의봇지업는작난이외다

푹푹 뛰여오르는 고기는 달빗헤 은빗비눌을번적임니다?

四方은너머도 고요합니다 두려우리만치! 물이 돌빠리에 채우니 달빗즌 출추고 바람맑으니 달은 더욱넘소이다 찌르르기소리하나 안들닙니다 물소리外에는! 맛치 各연주가의 연주에 취한普樂會場內와도가타!

三防의 밤은 洗心川 물소리에醉하여 달빗헤 고히 잠들엇습니다 奇角峰은 웃둑솟아 엄숙히 三防의밤을직히고 잇습니다 맛치등불밋헤 과부가 어린외아들의平和스레 자사는 양을 내려보고잇는듯한 늣김을줍니다 아마한時도지나 두시갓가이 되는듯하외다

이럭 三防의 밤은 깁허 만갑니다 바우 우에안즌나는답뱃갑끄낼 生覺조차 잇고 물속도되려다보고 달도 처다 봄니다。

무엇을 生覺하오릿가! 무엇이生覺나오릿가! 洪川에싸혓든머리 洗心川에 말끔 씻츠니 달빗더욱 맑아진듯하외다。나도神仙인듯하야 잘는사람을 비웃스며 내일도 모레도 이밤엇을것을生覺하고 車칸에서 잔요랑대옴니다。

오! 달빗헤 안긴三防!달빗헤 조으는奇角峰! 安眠을 讃揚하는 洗心川의물소리!(끗)

一九三五、八月十四日밤

더위를타지안케子女를맨드는……

宇津救命丸

우진구명환

甚한더위에애기들의 健康은?.

어린애기원기가업슬때에는언제던지宇津救命丸을먹이시라 더위를먹엇든지……寢冷으로熱이놉하서애쓰던지食傷으로泄瀉를하든지모처름인健康試練期를無効하게보내여어머님을애쓰시게하는어린애기가잇지나안으십니까

이럴때에準備로써어린애기와幼兒을두신家庭에는반드시宇津救命丸을常備하여두시라 發熱과消化不良에速効가잇쓰며疫痢와갓튼무서운惡疫을豫防하며虛弱한體質을改善하며小粒이어서服用키조흔小兒專門藥입니다

子女들이元氣업슬때는언제든지
宇津救命丸
을멕이십시요

이런症에는꼭

消化不良. 綠便. 疳. 虫氣.
痙攣. 發疹. 百日咳.
夜泣. 胎毒. 感氣症. 虛弱.
兒의强壯化에. 여름타는데

(定價) 卄錢부터十圓까지各種・藥店・百貨店藥品部에잇소

總代理店 東京 玉置合名會社